

〈내일은 7·11 남자부(男子部) 결성(結成) 70주년〉

2021년 7월 10일

광포(廣布)의 전(全) 책임을 지고 일어서라

올여름 기념 ‘체험담대회’ ‘대학교생대회’ 개최

창가반·아성회는 일본·브라질 교류회



후쿠오카(福岡) 기타규슈총현(北九州總県)의 체험담대회. 니시가타 남자부장이 격려했다. 〈지난해 11월, 고쿠라미나미(小倉南)문화회관에서〉

후계(後繼)의 사자(師子) 남자부(男子部)가 내일, 결성 70주년을 맞이한다.

의의(意義) 깊은 가절(佳節)을 기념해, 이번에 ‘체험담대회’와 ‘남자부대학교생대회’를 올여름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개최 단위는 각 지역에서 결정)

더욱이 일본과 브라질의 창가반(創價班)·아성회(牙城會)가 8월, 온라인 교류회(交流會)를 개최. 양국의 벗이 ‘엄호(嚴護)의 맹세’를 해 새롭게 출발한다.

또한 이것에 앞서 부(部:본부=지역)마다 ‘비전회의’를 실시.

남자부는 전원이 광포(廣布)의 로망을 이야기하고 신앙(信仰)의 기쁨을 공유하면서 대학교생을 선두(先頭)로 ‘대화확대의 여름’을 향해 힘차게 치고 나간다!



1951년 7월 11일, 도쿄(東京) 니시칸다(西神田)의 구(舊) 학회본부에서 실시된 남자부(男子部) 결성식(結成式)에서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戸田城聖) 선생님은 백수십 명의 젊은이에게 호소했다.

“광선유포(廣宣流布)는 내가 절대로 해내야 할 사명이다. 같은 자각(自覺)에 일어서 제군(諸君)의 손으로 이 존귀(尊貴)한 대사명(大使命)을 반드시 달성(達成)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선생님은 이 역사를 회상하며 엮었다.

“남녀(男女) 청년부(靑年部) 결성의 의의는 단순히 청년층에 속한 사람들을 모아 조직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도다(戸田)의 사상(思想)과 행동(行動)을 인생의 지표(指標)로 하는 창가(創價)의 후계자(後繼者)의 출발(出發)이며, 광선유포(廣宣流布)를 영원케 하는 영법구주(令法久住)로의 흐름이 열렸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소설 『신(新)·인간혁명(人間革命)』 제22권 ‘신세기’ 장(章), 원문직역>

이 말 그대로, 젊은 날의 이케다 선생님은 스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감연히 홀로 서서 온갖 고난(苦難)을 참고 연전연승(連戰連勝)의 극(劇)을 동지와 함께 만들어 냈다. 스승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하여 광포(廣布)의 전 책임을 지고 일어난다. - 이것이 사제직결(師弟直結)의 남자부의 금지 드높은 사명(使命)이다.

이 후계의 혼을 계승한 벗은 지금, 감염증의 위기 속에서 가치창조(價値創造)의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홋카이도(北海道)의 한 대학생은 남자부 선배의 격려로 일어나 한계(限界)의 벽을 부수는 대화확대(對話擴大)에 도전했다. 직장의 인간관계에 고민하는 벗과 온라인에서의 대화와 ‘동맹창제’를 끈기 강하게 거듭하는 가운데 지난 달 상쾌하게 홍교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학회 창립 100주년의 영광의 봉우리를 향하여 용약전진(勇躍前進)할 때는 지금!

니시가타 남자부장은 힘주어 말한다.

“사자(師子)의 용기를 분기(奮起)시켜 남자부가 광포확대(廣布擴大)의 돌파구(突破口)를 열겠습니다!”

〈사설(社說)〉 내일은 ‘남자부(男子部) 결성기념일’

2021년 7월 10일

광선유포(廣宣流布)는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내일은 남자부(男子部) 결성기념일(結成記念日). 지금부터 70년 전인 1951년 7월 11일, 남자부는 탄성을 올렸다. 결성식에 모인 사람은 약 180명. 젊고 가난한 무명(無名)의 청년들에게 도다(戸田) 선생님은 “광선유포(廣宣流布)는 내가 절대로 해 내야 할 사명이다. 같은 자각(自覺)에 일어서 제군(諸君)의 손으로 이 존귀(尊貴)한 대사명(大使命)을 반드시 달성(達成)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시 이케다 선생님은 23세. 남자부 반장(班長)으로 현재의 뉴리더에 해당한다. “스승의 구상(構想)을 단연코 실현(實現)해 보이겠다!”라고 맹세해, 결성식 직후에는 조속히 도호쿠(東北)의 센다이(仙台)로. 참석한 좌담회(座談會)에서 결핵을 극복(克服)한 체험(體驗)을 이야기하여 신래자 벗, 8명이 입회(入會)를 희망했다.

선생님은 이 에피소드를 남자부대학교지도집(男子部大學校指導集) 『맹세한 젊은이에게 보낸다』 발간사(發刊辭)에서 소개하며 대학교생에게 “모두 젊다. 미완성(未完成)이어도 좋지 않은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성장(成長)할 수 있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신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라고 응원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대학교생의 활약을 소개하는 세이코 전자판 오리지널 연재 ‘신☆단시부’가 시작됐다. 중국의 사회·문화에 관한 잡지(雜誌) 편집자와 짐(실내체육관)의 퍼스널(개인) 트레이너, 유튜버 등 분야는 다르지만 저마다 이상과 현실과의 겅에 몸부림치면서도 신심근본(信心根本)으로 도전의 땀을 흘린다. 국제협력의 일에 종사하는 도쿄의 어느 대학교생이 “사람과의 만남은 인생을 바꾸어 가는 깨달음을 준다.” “스승을 정하는 것으로 인생에 해매지 않게 됩니다.”라고 단언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벼들에게 공통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어쨌든 뛰어드는 것’. ‘자신감을 갖고 완벽하게 준비……’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자칫 “개성(個性)은 자신 속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천재(天才)!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講談社)의 저자인 작가 맬컴 글래드웰은 “개성은 커뮤니티 안에 있다”고 단언(斷言)한다. 타고난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것도 물론 크다. 그러

나 그 이상으로 우리는 주위 환경이나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

뛰어들어, 사람을 만나 살리고 살려지는 관계성(關係性) 속에서 개성(個性)은 개화(開花)해간다. 바로 광선유포(廣宣流布)는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번 여름도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보자. 스스로의 체험을 말해가자. 서로의 성장을 약속하면서.

〈7·11 ‘남자부 결성 70주년’에 사제승리(師弟勝利)의 무지개〉

2021년 7월 12일

7월 11일, 도쿄(東京) 각지에 선명한 ‘사제승리(師弟勝利)의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7·11 ‘남자부 결성 70주년’, 7·12 ‘총도쿄 여성부 행복·승리의 날’을 축하하듯이.

여기에서는 시나노마치(信濃町)의 총본부(總本部), 스가모(巣鴨)의 도쿄도다기념강당, 하치오지(八王子)의 도쿄마키구치기념회관의 ‘도쿄개가(東京凱歌)의 무지개’를 소개합니다.



총본부에 크게 걸린 무지개



광선유포대서당(廣宣流布大誓堂)과 무지개



총본부에서 촬영한 도쿄스카이트리와 무지개



스가모의 도쿄도다기념강당에도 무지개가



도쿄도다기념강당과 무지개



하치오지의 도쿄마키구치기념강당과 무지개



하치오지에서 본 무지개